

뉴데일리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 관련 — 조작적 여론조사의 유형 및 문제점 —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단장 : 김현)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인용발표와 관련하여 왜곡된 해석으로 발표하는 언론사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했다.

뉴데일리는 5월 18일자 기사 「김문수 45.8% vs 이재명 39.3% ... 김문수, 서울서 이재명 앞섰다」를 통해, 리서치민에 의뢰해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김문수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문항 설계와 조사 방식에서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작형 여론조사’ 사례로 평가된다. 질문 문항에 “반이재명 개헌연대” 등 편향된 표현을 사용했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범보수 단일화’ 관련 질문을 무리하게 4개나 배치했다. 또한 RDD(무작위전화걸기) 방식 중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번호를 사용하고, 일반적인 ARS 조사보다 지나치게 많은 문항을 포함시켜 표본 신뢰도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조사 결과를 인용한 뉴데일리의 보도는 해석상의 명백한 오류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사의 서울 지역 표본오차는 $\pm 4.8\%p$ 이며, 김문수 후보(45.8%)와 이재명 후보(39.3%) 간 격차 6.5%p는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이를 단정적으로 서열화해 보도함으로써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였고, 유권자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

더욱이 김문수 후보는 해당 보도를 인용해 곧바로 왜곡이 의심되는 웹자보를 제

작·배포하였으며, 이는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왜곡 보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1. 뉴데일리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접수
2.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3. 김문수 후보의 웹자보 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왜곡된 여론조사 및 그 결과의 악의적 유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여론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작적 여론조사의 유형 및 문제점

□ 25.5.18 리서치민-뉴데일리 조사 사례

1) 조사회사(리서치민), 편향적 여론조사 실행(편향적 질문 문항 설계 등)

가) 리서치민 조사의 편향성

- 가상번호 대신 검증되지 않는 RDD번호 사용하여 표본추출틀 신뢰도 낮음
-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응답자의 경우 이탈 가능성 높아지도록 문항 설계
 - 질문에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범보수 단일후보”라는 편향된 표현 사용
 - 개연성 없고 가정적인 상황인 국민의힘 단일화 관련 4개 질문 집중 배치
 - ARS임에도 문항수가 너무 많고 개별 질문이 길고 복잡함

리서치민-뉴데일리 조사 (25.05.17.)

(단일화 필요성)

Q3. 이번 대선에서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범보수 단일후보를 위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간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번 로테이션)

- 1)번 단일화에 찬성한다 2)번 단일화에 반대한다 3)번 모르겠다

(단일후보 적합도)

Q4. 선생님께서는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하는 범보수 단일후보가 이뤄진다면 범보수 단일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2번 로테이션)

- 1)번 국민의힘 김문수 2)번 개혁신당 이준석 3)번 기타 후보
4)번 없다 5)번 모르겠다

(2인 가상 대결 1)

Q5.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범보수 진영 후보로 만약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순서는 기호순입니다

-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범보수 단일후보 김문수 3)번 없다 4)번 모르겠다

(2인 가상 대결 2)

Q6. 그럼 이번에는 반이재명 개헌연대를 명분으로 만약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순서는 기호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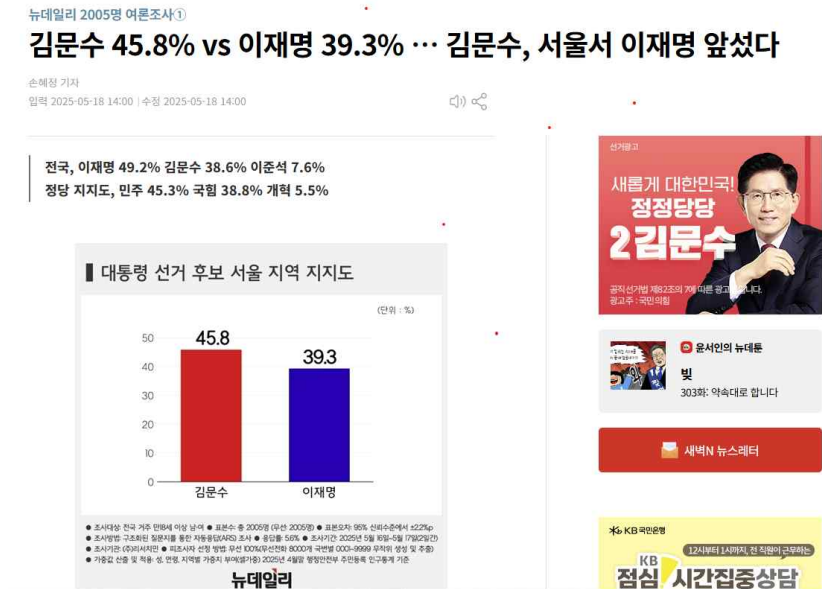
-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번 범보수 단일후보 이준석 3)번 없다 4)번 모르겠다

2) 언론사(뉴데일리), 조사결과를 왜곡 해석하여 보도

가) 뉴데일리 보도의 왜곡성

○ 서울의 지지도는 서울 지역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전국 지역 오차범위를 적용하여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보도

- 해당 조사에서 서울 지역 조사 사례수는 419명으로 표본오차가 $\pm 4.8\%$ 이고, 서울지역 두 후보의 격차는 6.5% 임 →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 가릴 수 없음



“김 후보는 서울에서 45.8%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서울 거주 유권자 사이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이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6.5%포인트 차로 앞선 것이다.”

3) 후보 측(김문수후보), 왜곡성 웹자보 등 홍보물로 여론전에 활용

가) 김문수 후보 웹자보의 악의성

○ 그래프에 ‘서울’ 결과임을 삭제, 표본수나 표본오차를 제시하지 않아 판단 저해



□ 이외 조작적 여론조사의 유형 및 사례

1) 편향적 문항 설계(*공직선거법 108조5항 위반소지)

가) 질문의 편향성

-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슈를 선정하거나, 개연성 없는 가정적 상황을 질문
- (KOPRA 5일 조사)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와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을 질문함으로써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문항 설계
- (여론조사공정 14일 조사)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질문 직전 ‘2030 청년세대 대변’ 질문 배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을 앞에 배치

KOPRA-공감신문 조사 (25.05.04.)

◆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무자격’ 공감도 ◆

Q6. 대법원의 판결로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사실상 유죄 확정이나 다른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보기 1~2번 로테이션)

공감하면 1번

공감하지 않으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 민주당의 대선후보 교체 필요성 ◆

Q7. 선생님께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보기 1~2번 로테이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1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2번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나) 문항 순서배치의 편향성

- 지지도 질문 앞에 특정 후보나 이슈를 상기시키는 질문을 배치해, 지지도 응답에 영향
- (KOPRA 13일 조사) 이례적으로 1번 문항에 후보지지도 또는 투표의향이 아닌 ‘차기 대통령의 자격요건’을 배치함

KOPRA-아시아투데이 조사 (25.05.13.)

본 질문

◆ 차기 대통령의 자격 요건 ◆

Q1.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1~3번 로테이션)

도덕성과 정직성이면 1번

국정운영 능력이면 2번

국민통합 리더십이면 3번

그 밖의 요건이면 4번

잘 모르겠다면 5번을 눌러주세요

◆ 투표 의향 : 당일투표 vs 사전투표 ◆

Q2. 선생님께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5월 29일과 30일

사전 투표일에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6월 3일 투표할 생각이면 1번

사전 투표일에 투표할 생각이면 2번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3번

투표할 생각이 별로 없다면 4번

잘 모르겠다면 5번을 눌러주세요

◆ 대선 후보 지지도 ◆

Q3. 대통령 후보들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호명은 기호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면 1번

국민의힘 김문수면 2번

개혁신당 이준석이면 3번

민주노동당 권영국이면 4번

자유통합당 구주와면 5번

무소속 황교안이면 6번

무소속 송진호면 7번

투표할 후보가 없다면 8번

잘 모르겠다면 9번을 눌러주세요

다) 질문 보기의 편향성

○ 보기의 불균형 및 어휘 선택 부적절 사례

○ (미디어토마토 3~5일 조사) ‘강행’이라는 중립적이지 않은 단어를 사용

미디어토마토-뉴스토마토 조사 (25.05.06.)

문3. (이재명 대선 출마 여부) 선생님께서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순환해서 불러드립니다. [정순역순 로테이션]

- ①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강행해야 한다면 1번
- ②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면 2번
- ③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세요.

라)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질문으로 표본 편향 유도

○ ARS 조사의 경우, 보통 5~6개 문항 구성

○ (리서치민 16~17일 조사) ARS임에도 불구하고 본 질문이 10개 구성. 또한 각 질문이 매우 복잡하고 길게 작성됨. 이같은 조사에는 특정 계층, 특정 지지성향 응답자의 응답률이 높아질 가능성

리서치민-뉴데일리 조사 (25.05.17.)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Q7.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취임전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번 로테이션)

- 1)번 취임이전 발생한 일이므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
- 2)번 취임이후부터 임기 종료시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 3)번 모르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Q8.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당선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번 로테이션)

- 1)번 위헌으로 법안에 반대한다
- 2)번 합헌으로 법안에 찬성한다
- 3)번 모르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Q9. 최근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환송 받은 고등법원은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2번 로테이션)

- 1)번 면소판결을 위한 방탄 입법으로 반대한다
- 2)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으로 찬성한다.
- 3)번 모르겠다

2) 표본집단의 대표성 문제

가) 조사 자체의 품질과 대표성 문제로, 표본추출의 대표성이 저하된 경우

※ [선거여론조사기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공표용·비공표용 조사 모두 포함)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대상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 누구든지 후보자가 구축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표본추출틀로 사용해서는 안 됨.
-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됨.

○ 표본추출틀의 문제

- 공표용 선거여론조사는 가상번호형태로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30배수까지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음. 가상번호가 아닌 RDD번호는 결번이 많고, 지역·성별·연령 정보가 없어, 가상번호에 비해 많은 번호를 사용해야 신뢰도 담보 가능
- (KOPRA) 대선 국면 들어 3만 개나 5만 개의 RDD번호만을 사용하여 신뢰도 저하

등록일	2023-06-04	2023-12-21	2024-04-03	2024-04-04	2024-08-21	2025-01-05
의뢰자	고성국TV	고성국TV	고성국TV	고성국TV	기호일보	아시아투데이
RDD 사용규모	258,143	150,000	150,000	250,000	200,000	150,000
등록일	2025-02-01	2025-02-07	2025-02-08	2025-03-15	2025-05-04	2025-05-13
의뢰자	아시아투데이	고성국TV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공감신문	아시아투데이
RDD 사용규모	30,000	30,000	30,000	42,000	45,000	50,000

○ 조사시간의 문제

- RDD번호로 지나치게 짧은 시간에 조사를 완료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표본의 대표성 확보 어려움
- 한길리서치 10일 조사 조사시간 1일간 2시간, KOPRA 13일 조사 조사시간 1일간 4시간15분 등

▶ 민주당 선대위, 정정 요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예정·김문수 후보에 대한 법적대응 착수 검토(5.19)